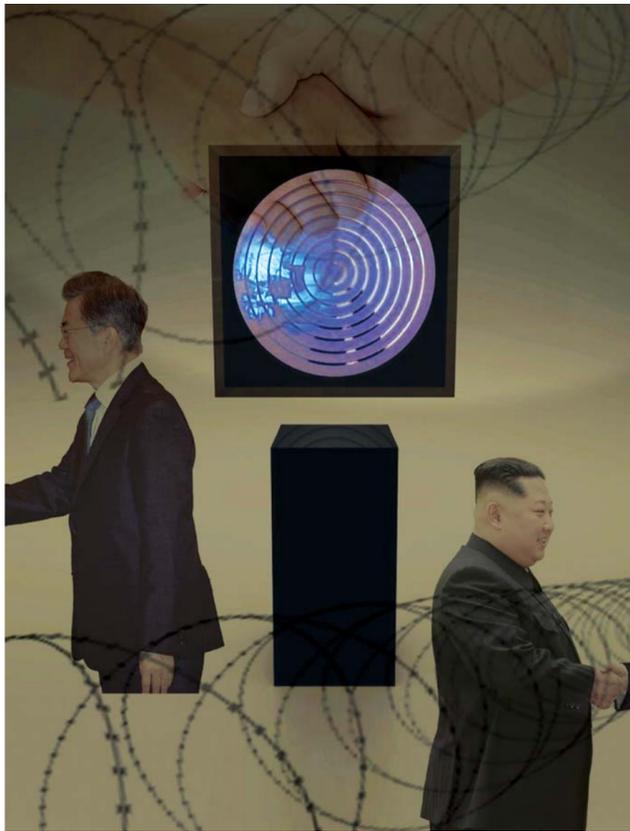


남북 정상처럼 '평화의 악수' 해볼까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 전
16~20일 광주시청 1층서
휴전선 철조망 뒤 영상 상영
시민 악수 모습 사진 촬영
신창우·주홍 작가 참여



남북정상의 평화의 악수를 시민들이 재현해보는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 전이 16~20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서 열린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남과 북이 분단됐다. 올해로 분단 70년이다. 2018년 4월 27일, 휴전선이 가로막는 분단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는 환호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분단의 세월을 뛰어 넘어 '통일'로 한반정 나가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70년 분단의 세월을 뛰어넘어 통일을 이야기하는 전시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휴전선, 분단 70년을 넘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설치미술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관객참여형 작품전이다.

가로 12m, 세로 9m, 높이 4m 전시장을 세우고 절망으로 휴전선을 만들어 남북분단 이후 우리 역사 속에서 발생한 수많은 관련 사건들의 사진을 수집하고 영상으로 편집해 철조망 뒤면에 설치된 화면에 빔프로젝트를 쏘아 보여준다.

작품은 시민참여형으로 이뤄진다. 설치된 휴전선 앞에서 두 사람이 남북 정상처럼 평화통일을 바라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면 스태프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다시 영상작품에 반영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악수의 주인공은 시민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사진은 개인 이메일로 보내준다.

작품은 미디어 아트 그룹 'BIGFOOT' 회원으로 활동중인 신창우 미디어아티스트가 제작했다. 작가는 '흔적-이산가족'이라는 작품에서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시민들의 동작을 따라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이 드러나는 형태로 연출했으며 이산가족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장면은 남북분단의 적나라한 흔적을 보여준다.

또 다른 참여작가인 주홍은 16일 오후 3시 전시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다. 화면을 펴고 스폰지에 먹물을 묻혀 탁본하듯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장면을 그린 후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장이 총괄 기획을 맡았으며 조소연, 오아라씨가 어시스턴트로 참여했다. 문의 010-5680-200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로 종전'

DMZ 캠프 참가자 모집
뉴스컴퍼니 9월 18일 행사

문화기획사 '뉴스컴퍼니'가 오는 9월 18일 개최하는 '문화로 종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캠프는 이틀 간 무박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파주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와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등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로 종전 캠프는 지역 청년들이 DMZ 평화지대 선전에 따른 문화적 해석과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고재열 시사IN 기자가 진행하는 '문화로 종전살롱'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통일문화 전문가 김면박사와 대화를 나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 관람과 DMZ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청년 1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 희망자는 네이버 폼(naver.me/5qsNnTv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호남권 참가자들은 광주 남구 양림동 공영주차장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참가비 5만원. 문의 070-4239-504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 '22'

한·중 위안부 할머니들의恨

합작 다큐영화 '22' 개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영화 '22'가 지난 14일 전국에서 개봉해 상영 중이다.

이날은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 이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같은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한국·중국이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로 중국 귀커 감독이 연출했다.

우리나라 피해자로는 박차순 할머니가 출연했다. 호북 방언을 사용하고 '아리

랑'과 '백도라지'를 부르는 박 할머니는 여전히 중국에 남아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을 피한다. 중국 지역 위안부 피해자는 20만 명이지만 올해 8월 현재 단 6명 남은 상태다. 영화에서는 2014년 촬영 당시 생존했던 22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으로 이중 28명이 생존해 있고 212명이 세상을 떠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극장, 광주 독립영화관, 메가박스 광주충장로·전남대점에서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몸·사랑·돈' 고전평론가 고미숙 인문학 강좌

내일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로 고전평론가 고미숙(사진)씨를 초청했다.

16일 오후 3시 열리는 강의 주제는 '우리시대 인문학의 세가지 키워드-몸, 사랑, 돈에 대하여'로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잃어가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몸, 사랑, 돈'을 소재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철학 담론으로써 잘 다뤄지지 않는 우리의 몸을 육체와 정신의 측면에서 '동의보감'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로 시야를 확장해 자본주의 측면에서 인간의 탐욕과 사회구성원



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씨는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문학 고전시가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공동체 '수유+너머'를 창립했고 관심 영역을 넓혀 인문학의 역사 연구 '김이당'을 설립했으며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살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공부의 달인 호모 쿠파루스' 등의 책을 펴냈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삼국지 속 마한인의 생활

비움박물관 내일 조현중 강의

비움박물관(전남여고 앞) 인문학 강의가 16일 오후 7시 박물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현중(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삼국지에 기록된 마한인의 생활'을 주제로 강연한다.



국립광주박물관장을 역임한 조 소장은 국립전남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4년 국립박물관에 입사해 국립제주박물관 초대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전시과장, 고고부장, 학예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무료 강의.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영산강문화관 9월 2일까지 박정용 초대전

박정용 작가 초대전이 오는 9월 2일까지 영산강문화관(광주신남구송촌보길)에서 열린다.

'동존(同存)-세계일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채로운 자폭으로 보여준다. '세계일

화'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의 그물로 이어져 있으며 개별적 존재는 상호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인물상은 다양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인물들은 환하게 웃거나, 미소 짓거나, 파란대소를 하며 행복한 모습을 드러낸다. 또 전시장을

가득 채운 나무시리드도 눈길을 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경희대 대학원을 거쳐 전남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1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은암미술관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전국조각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